

■ 인터뷰- 민주당 호남 유일 최고위원된 3선 강기정 의원

## “민주당 탈호남 정책은 잘못됐다”

민주통합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최고 위원은 14일 “오는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근간이자 심장인 호남의 열정을 되살리고, 지역발전과 호남 정치력 복원을 위해서는 당내에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호남에선 유일하게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강 최고위원은 13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본지와 단독 인터뷰했다. 강 최고는 당 지도부의 ‘호남 출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호남 소외론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떠나보내고 있는 큰 힘이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세력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훈련이 잘되어 있고, 당의 심장역 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순간 순간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국 정당화를 주구하며 ‘탈(脫)호남’을 외치는 것이다. 전국 정당은 좋지만, 와 탈



당 지도부 뽑는데  
모바일·시민 우선  
정당정치에 어긋나

호남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하나는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이 개혁대상이고, 물갈이론이 팽배해진다. 애권연대지역도 시·도민의 동의없이 하는 것이 문제다.

당원이나 핵심당원들도 호남에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도 이들에 당의 권리와 의무조항은 철저히 요구하는 반면 권리라는 사실상 작은 것이 문제다. 선거가 아닌 당 지도부를 뽑는데도 당원은 뒷전이고, 모바일·시민이 우선이 되는 것은 정당정치에 어긋난다고 본다. 지난 4·11 총선에서도 모바일 경선 때문에 광주 동구에서 투신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원인을 제공한 중앙당은 책임을 지지 않고 지역민들만 고스란히 죄인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호남 당원들이 허탈감, 좌절감에 빠져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당내 호남 소외론에 대한 해결방법은.

▲당이 당원들의 권리와 존중하는 방향으로 당 운영이 되어야 한다. 2008년~2010년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지

됐다. 희생과 저항, 봉사정신이 그것이다. 이러한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본다. 당 내에서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광주정신이 요구하는 또 하나는 정권교체다. 광주·전남지역 당원과 지지층이 흥겹고 열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뜻이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을 다할 것이다. 대선후보를 공정하고 감동적으로 선출하고, 호남지역 경제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대선공약화하는 일도 제 임무다. 열심히 할 것이다.

-당내 친노·비노 간 갈등이 심각한데.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함께한 사람들의 모임, 그룹들이 친노에서 폐권적 지위를 갖거나 행동을 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친노·비노로 나눠진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고, 이를 뛰어넘는 3기 민주정부를 세우자는 데 모두 단합해

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통합 과정 등을 거치면서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지도부만 존재하는 당이 됐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보내지 못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보내지 못했다. 이젠 속히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민주당을 하루 빨리 추스려 민주적 정당,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근간인 호남의 열정을 되살리고, 그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 지지층 가슴에 민주당의 열정을 다시 불어넣는 역할을 해내겠다.

-호남 정치력 복원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정치력이 부족하고, 대표인물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호남의 정신적 자주이자, 민주주의 거목인 김 대통령과 비교하니 지역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시민과의 소통 등 대중 속으로 과고드는 게 계획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중의 큰 물결에 몸을 던지고, 대중 속으로 더 다가가서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호남 유일의 최고위원이다.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80년 이후 광주정신이 시대정신이

야 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당직자 인선도 탐색인사를 했다. 남은 것은 신임 지도부가 대선 후보 경선관리에서 공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 대선 정국 전망은.

▲지난 4·11 총선 득표율을 보면 매우 승산이 있는 총선이라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는 짚은 총들이 민주당의 경선관리와 후보 및 전략 부재 등에 대한 실망,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싸움을 했다. 하지만, 대선은 보다 더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짜 짚은 총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선으로 인한 ‘경선 논란’으로 휩싸여 있고, 5공 세력들의 회귀도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기회다. 공정하고 흥미있는, 역동성 있는 경선을 치른다면 대선승리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당내 광주정신 실현  
연말 대선 승리 연결  
지지층에 희망 줄것

여수세계박람회 죄고 인기 전시관인 아쿠아리움이 오는 18일부터 부분 폐관 없이 정

상 개관한다.

또 흰고래 벨루가의 휴식을 위해 2주에 한

번 월요일에는 벨루가 수조를 휴관하기로 했다. 조작위는 14일 “지난달 20일부터 임시 휴관해 오던 아쿠아리움스를 다시 개관하겠다”고 밝혔다.

아쿠아리움의 전시 공간 중 하나인 아쿠아리움스는 아마존 밀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맹글로브 모형과 그 안에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해룡, 철갑상어, 피라니아 등 수백여 종의 희귀 암수어가 있어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조작위는 또 아쿠아리움의 인기몰이 생물인 벨루가의 휴식과 건강체크를 위해 격주 단위로 월요일을 벨루가 휴무일로 지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박람회 입장권 할인 사기광고 요주의

### 조직위, 인터넷서 확인

최근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싸게 판다는 인터넷 사기 광고가 확인돼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조작위는 최근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박람회 입장권을 원가보다 25%

싸게 판다는 사기 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작위는 “입장권은 절대 할인이 없다”며 이들이 광고하는 입장권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외관상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람회 입장권 속에는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 입장 시 게이트 검색대에서 사용 여부가 확인되고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입장권은 박람회 홈페이지([www.expo2012.kr](http://www.expo2012.kr))나 인터파크 흡페이지([www.interpark.com](http://www.interpark.com))에서 온라인 예매하거나 광주은행, 기업은행, 이마트 전 지점, 전국 신세계 백화점, 코레일 전국 주요 역내 여행센터 19곳, 여수엑스포역 등에서 실물로 구매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오늘의 여수엑스포

박람회를 관람한 뒤 세계적인 시설과 품격을 갖춘 전남 최고의 공연장, 여수 ‘예술마루’에 들어보면 어떨까? 대극장에선 창작 오페라 ‘귀향’이 손님맞이를 한다. ‘귀향’은 일본으로 항해 중 조선에 표류했다 억류된 하벨 일행이 여수에 머물던 시기의 이야기로, 여수에서 꿈꾼 사랑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작품이다.

△독일 국가의 날, 문화공연(엑스포홀·오전 10시)

△특별기획공연 ‘아이리브 뮤지컬’(천막극장·오전 12시)

△밀레이시아 문화공연(해양광장·오전 12시30분)

△필리우 문화공연 ‘전통춤’(해양 광장·오후 6시)

△창작오페라 ‘귀향’(예술마루 대극장·오후 7시30분)

△특별초청공연 ‘Big Wave Concert’(해상무대·오후 7시30분)

△어제의 관람객 수=4만7021명(이하 14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관람객 수=168만6229명

## 현대공인증개사

공인증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액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여 청암  
강하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설구합>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소리룸)

### <토지구합>

- 지역 : 광산구 도청동 하남동 정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지연녹지 · 용도 : 주거부동

### <창고용도>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 창고용지(기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 <서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9억 월900만원

###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남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기회 협의 후 결정

- 지연녹지 533평 30m 도로지선, 농지전용 용도,

- 매매가 협의후 결정

### <시외 매도물건>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m<sup>2</sup>(725평) 평당 95만원

- 광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m<sup>2</sup>(3,468평) 평당 70만원

- 물류창고용도 : 장성군 홍천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근린지역

-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 T. 062) 371-1900 , 010-2006-0115

- FAX(223-1772 훈 011-602-2532  
(광주광역시 동구 500m 지점 www.885894.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냉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양으실 분 순남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아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땅 구해드림!

일곡지구 종심상가 일곱집지역에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 첨단 신창동 상가 건물

### 파실분화영! (8억~12억 계약 가능)

《매수자 대기 중!》

### 광주 원룸 매매

#### 원룸 파실분 매매!

(매수자 대수 대기 중!)